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

도의회 본회의서 가결... “학생·교직원 인권 보호, 교사 교육활동 보호 기반 마련”

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이 지난 14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생 인권을 넘어 교직원과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례가 제정됐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인권조례는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의 인권 보호 대상이 학생에 한정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학생뿐 아니라 교원과 직원,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함으로써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더불어 매년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모니터링해 그 결과

를 전북도교육청 인권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구성원의 인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전북교육인권센터에 인권담당관을 두고, 인권정책팀과 교육활동보호팀, 인권보호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활동보호팀에는 교권 전담 장학사를 배치해 학교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하는 인권위원회도 꾸린다.

인권위원회는 △인권 보호·증진 기본계획 수립 △학교 구성원 인권 관련 제도·정책 △학생·교직원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등을 심의해 교육감에게 시정 권고 조치 등을 하게 된다.

특히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는

학생과 교직원이 교육인권센터에 구제 신청을 하면, 인권담당관은 교육청과 학교 등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방문을 조사하게 된다.

한편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심의회는 각각 교육인권센터와 인권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이에 앞서 전북교육청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학교 구성원은 물론이고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교육·인권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와 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정성환 전북교육인권센터장(직무대리)은 “전북교육인권조례를 바탕으로 도내 학교 구성원들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나아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1학생 1스포츠... 행복한 학교생활 조성

도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추진... 스포츠 활동 통한 교육적 효과에 역점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1인 1스포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생 1인 1스포츠 활성화 사업’을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 이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스포츠 활동을 통한 교육적 효과에 역점을 뒀다.

이 사업은 체력·건강UP 및 체육배려학생지원, 학교스포츠클럽 교내리그 전 운영, 365+체육온화운동, 여학생 체육활성화 지원, 7600+운동 실천학교 등 총 5가지로 운영된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대상 학교를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에는 총 15억4,9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학교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다. 먼저, 체력·건강UP 및 체육배려학생지원 사업은 김영명의 장기 유행에 따라 체육 배려학생 및 저체력 학생들의 체력회복, 다양한 신체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면역력 강화를 위한다. 총 43개 학교에 2억1,5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학교스포츠클럽 교내리그 전 운영은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로 전환해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207개 학교에 4억2,400만 원이 투입된다.

교내리그를 통해 지역교육지원청 리그에 참가하고, 14개 시군교육지원청의 종목별 선발전들은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도 참가한다. 특

히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참가 기회도 주어진다. 이를 위해 689개 학교에 22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365+체육온화운동은 각급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활동에 대한 디지털 기반 콘텐츠를 제공 하는 사업이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수업 또는 쉬는시간 등에도 운영된다. 총 207개 학교에 8억2,000만 원이 지원된다.

내년에도 여학생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여학생 특화 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스포츠 환경조성에 목적을 두고 여학생 선호 종목 수업에 활용, 양성평등적인 체육수업 환경조성, 캠프 등 활동 등 학교 특성에 맞게 추진한다. 37개 학교에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7600+운동 실천학교는 학생들의 건강체력 증진, 질병예방, 비

“도의회 전북교육인권조례 가결 환영”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사노조는 “전북교육인권조례 통과를 환영합니다. 전북교사노조는 전북교육인권조례 의결수령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지지합니다.”

전북교사노조(정재석 위원장)는 지난 14일 도의회의 전북교육인권조례 가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에 따르면 인권담당관이 신설됨으로써 인권센터는 인권전문가 인력을 확충하고, 센터의 규모가 확장된다.

이로 인해 도내 교사들은 교육활동보호 전담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활동 보호 업무에

도교육청이 직권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들은 상담이나 법률자문, 시간조사지원, 치유지원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전북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육인권조례의 제정은 교사들의 인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열과 성을 다할 것이며, 교육인권조례가 허울뿐인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수의대 스마트 강의실 조성

대면·비대면 강의 모두 활용 활용·녹화 가능 장비 구비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이 학생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스마트 강의실과 북카페 등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제공)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박상열)이 학생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스마트 강의실과 북카페 등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문을 연 수의대 스마트강의실은 대면과 비대면 강의에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과 녹화, 송출까지 가능한 장비가 구비됐다.

온·오프라인 모두 강의의 접근성을 높이고 녹화 후 자동 업로드 되는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이 놓친 강의나 부족한 내용을 다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

이와 함께 학생 자치공간인 북카페

도 새롭게 문을 열었다.

새 단장한 북카페는 재학생들을 위한 휴게시설, 스터디룸,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학생들의 휴식 및 취미활동 스터디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열 학장은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자치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강의자료를 쉽게 접근하고 포스트리콜을 기록할 수 있는 양방향 수의학 학습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학부모 참여 공모사업 운영

오늘부터 28일까지 신청접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2023년 학부모 참여 공모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단위학교 학부모가 교육주체 일원으로서 학교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학부모, 학생, 교사가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만들어 가는 학교공동체 사업이다.

공모 분야는 만들기 탐방, 교육, 행사, 환경개선, 문화, 동아리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17~28일까지 도교육청 공모사업신청시스템(<https://www.je.gakr/gngmno>)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도교육청은 학부모와 교원·학생 참여 수준, 학교참여 활동계획, 예산 집행계획, 학교·지역사회의 학부모 지원 정도 등을 심사해 30여 개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예산은 지역별·학교별 계획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최대 500만원까지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학부모가 교육의 한 주체로 학교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해 가정·학교 간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학교 교육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축구 기본기술의 이해’

전주대 정경구 교수 강좌 올 K-MOOC 사업 선정

전주대학교 정경구 교수(경기지도학과)의 ‘축구 기본기술의 이해’ 강좌가 축구 분야 최초로 2023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차년도 총 6,500만 원이며, 전주대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운영된다.

강좌는 총 15주 차로 구성, △축구의 기본기술에 대한 정의 △패스와 볼컨트롤의 기술 △슈팅과 킥의 기술 △그림 공격 수비 등으로 이뤄졌다.

정 교수는 “축구 스마일백(스포츠를 마음껏 100세까지) 시대를 고려해 축구의 기본기술을 쉽게 접할 수 있게 강좌를 구성했다”며 “축구에 관심이 있지만 쉽게 배우지 못한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강좌를 통해 축구의 기본기술을 익혀 웃으며 마음껏 100세까지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국가근로 취업연계 중점대학 선정

7년 연속... 150명 선발 실무중심 국가근로 시행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국가근로 취업연계 중점대학에 7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학생의 희망 직무에 따라 대학과 협약을 맺고 있는 기업에서 근로를 겸한 실무경험을 쌓고, 그에 따른 급여를 국가가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우석대는 중장기 발전 계획에 맞춰 진로취업 종합지원 체계를 수립하고, WOW(Woosuk Over Woosuk) 현재의 한계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자 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학생 개인별 진로설계부터 취·창업 역량개발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교내 진로취업지원센터와 학생복지팀·현장실습지원센터·LINC 3.0

사업단·대학일자리본부 등이 되어 지역 일자리 유관기관들과 고용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앞장서 왔다.

한편 우석대학교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3억6,000여만 원을 지원받아 직무 체험형 100명, 채용 연계형 50명 등 총 150명을 선발해 여름·겨울 방학 기간 중 실무중심의 국가근로를 시행할 계획이다.

남천현 총장은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기업은 비용 부담 없이 인력을 고용하고, 학생들에게는 취업으로 연계될 작거나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역 특화산업 수요에 기반을 둔 산·학·연·관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한 활동도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대, K-핵심인재 자기성취 포상제 OT

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12일 군산대학교 제2학생회관 내 취업세미나실에서 2023학년도 진로·취업동아리 K-핵심인재 자기성취 포상제 오리엔테이션(OT)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K-핵심인재 자기성취 포상제’는 2023학년도부터 추진하는 신규 프로그램으로 기존 동아리 프로그램의 단점을 보완하여 운영되며 개인별 성취목표 및 활동 계획을 스스로 세워서 활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선발된 30명의 학생들은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사업 설명과 담당 컨설턴트를 배정받았으며, 유사한 다른 목표를 가진 참여자들과 팀을 조직하는 행사를 가지기도 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식물의약사’ 제도 도입 전문가들 머리 맞댄다

농진청 항생제 농약 내성 최소화모델 정책연구팀, 20일 전북대 농생대 분관 시정각실에서 농작물 병해충의 진단 및 약제(항생제 포함) 처방을 위한 식물의약사제도 도입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물의약사 제도 도입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와 순천대, 한국농수산대학, 국립농업과학원 등으로 구성된 농진청항생제 농약 내성 최소화모델 정책연구팀은 오는 20일 오후 1시 전북대 농생대 분관 시정각실에서 농작물 병해충의 진단 및 약제(항생제 포함) 처방을 위한 식물의약사제도 도입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백승우 전북대 농생대학장의 인사발로 시작되는 이날 심포지엄에는 고영진 전 순천대 총장,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어 1부에서는 △전북대 김재수 교수가 식물의약사 도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농수산대학 권덕호 교수가 해외 관

련법에 대한 소개, △순천대 이세진 교수가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2부에서는 박종균 한국응용곤충학회 회장, 전용철 한국식물병리학회 회장, 이영식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전무, 남영준 강원도 4-H 농업인 연합회장, 농촌진흥청 및 관련 기관 인사, 공공기관 관련 학과 교수 및 직원, 농업인 및 판매관리인 등이 참석해 식물의약사 제도에 대한 토론의 장도 마련됐다.

백승우 학장은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 다양성에 대한 중요도가 커지면서 식물의약사 제도 도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식물의약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많은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인문대학 디지털융합 세미나

전주대학교 인문대학은 지난 12일 인문학 분야 교수 대상으로 디지털융합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세미나는 6월까지 월 1회 총 3회 치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인문학 분야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의 이해와 중요성이 다뤄졌으며, 교육과 연구에 적용하는 방법도 소개됐다.

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활용한 인문학 분야에서의 새로운 연구 주제와 분석 방법을 발굴하고, 교육 방법을 혁신하는 등의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됐다.

안정훈 학장은 “앞으로도 학문 간 융합을 통한 인문대학을 발전시켜 나가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인문학 분야에 있어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역량 강화를 예고했다.

/장은성 기자